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자금 유용하면 '대출제한'

1차 적발시 2년·2차 적발시 5년 신규대출 제한 임대업자가 시설자금 대출시 자금유용도 점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권 추가확인

앞으로 상호금융권역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가계자금으로 유용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강화된다. 2번 적발될 경우 5년간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임대업을 목적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권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지 확인할 방침이다.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자금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은행은 물론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이 제한되며 이같은 불이익 조치를 약정서에 명시하고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점검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후점검 생략기준을 건당 2억~2억 5000만원이나 5억원 이하로 두는 등 업권마다 상이했다.

에 맞게 사용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방법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과 서류점검으로 이원화한다.

영수증,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맞게 전산도 구축한다. 점검생략대상과 점검결과, 제재조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대출 실행시 조합 대출담당자가 생략대상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협상호금융, 이웃과 情 나누는 따뜻한 추석

전북지역 요양원·복지센터에 농촌사랑상품권, 쌀 등 전달

농협상호금융은 최근 전북지역 들녘요양원, 연철지역아동센터, 정읍에육원 등을 찾아 농협 쌀 전달하는 등 명절의 풍성한 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또한, 소성모 대표이사과 유재도본 부장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추석을 맞아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1천5백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과 농협 쌀 등을 전달,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무보고서 '윤곽'

4대 부문 29개 항목 마련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에 따라 삼성 등 대상 그룹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할 4대 부문 29개 보고항목들이 마련됐다.

은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을 현황, 금융그룹의 주주유형별 지분 현황, 비금융계열사와의 인력 교류 현황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룹 자본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그룹 자본비율 현황,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계열사간 상호·교차·우회 출자 현황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전북은행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를 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큰 호응

도내 중학생 120여명 대상... 적성과 흥미·진로 찾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최근 전북은행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도내 중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를 했다

자 프로그램, 리더십 스피치, 진로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강의와 IT, 방송, 뷰티, 의료, 법률 등 각 분야의 멘토 특강까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드론과 3D 프린팅 전문가, 아나운서, JYM 뷰티 대표, 푸른 안과 원장, 전북은행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직업군별 다양한 정보와 경험담 등을 나누며 참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이행에 필요한 보고서식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금융그룹들은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이 서식에 맞춰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 초기에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간소화했다"며 "보고서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그룹과의 3차례에 걸친 TF(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하반기 공채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26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을 한다고 밝혔다.

신규직원 채용은 일반 및 IT분야로 나누어 진다. 일반분야의 경우 시, 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해당 지역 출신 지원자를 우대하고 IT분야의 경우는 지역 구분이 없다.

지원서 접수는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서류심사, 온라인 인·적성, 필기시험, 면접) 거쳐 11월 중순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학력, 연령, 전공, 자격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Open) 채용으로 진행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진원,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전북경제진흥원(원장 김희원)은 10월 4일까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중 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전북도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내의 청년들 근무로 월 20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추가 모집 중인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단체로 96명의 청년을 추가 지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1차 모집을 통해 40개의 기업 선정, 63명의 청년 기업 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중이고 특히 SNS를 활용한 기업 홍보, 마케팅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9월에 근무를 시작한 한 청년혁신가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고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보람이 크다"며, "지원사업에 더 많은 청년들과 그들의 터전이 될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옥구농협, 원로조합원 노인용 보행기 전달

옥구농협(조합장 고석중)은 최근 본점 대회의실에서 고석중 조합장을 비롯, 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역 원로조합원에 대한 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옥구읍 옥서면 영농회 원로조합원에게 55대의 노인용보행기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농협재단에서 5대의 노인용 보행기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많은 원로조합원에게 혜택을 주자는 임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자체 예산 마련, 추가로 50대의 노인용 보행기를 구입, 총 55명의 원로조합원에게 노인용보행기를 전달하는 기념식을 했다.

고석중 옥구농협 조합장은 "임원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협조에 의해 마련된 자리로 임원들께 감사한다"며, "노인용보행기 지원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원로조합원의 활동 편의를 제공, 활기차고 건강한 농촌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